

##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 K-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김수현<sup>1\*</sup>, 배유나<sup>2</sup>, 이진현<sup>3</sup>

<sup>1</sup>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거제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sup>3</sup>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 Based on the surveys in K-College

Soo hyun, Kim<sup>1\*</sup>, Yu Na Bae<sup>2</sup>, Jin-Hyun Lee<sup>3</sup>

<sup>1</sup>koje collage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2</sup>koje collag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sup>3</sup>Dong-eui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들의 학습참여에 관한 학습과정 수준이 성별, 수업연한, 계열, 학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 소재 K전문대학 정규교육과정 재학생들 중 2015학년도 2학기 학습과정 설문조사 참여에 응답한 재학생 총 684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전문대학 학습과정 분석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빈도분석과 성별, 수업연한, 계열, 학점에 따라 전문대학생들의 학습과정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별에 따른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은 하위요인 중 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 학습성과, 대학시설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수업연한에 따른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은 하위요인 중 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 수업만족도, 대학시설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계열에 따른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은 하위요인 중 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 학습 상호작용, 학습성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학점에 따른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은 학습과정과 전체 하위요인(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 수업만족도, 학습 상호작용, 학습성과, 대학 시설 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함의를 기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years for graduation, college majors, and grades by the level of students' learning process about the student engagement of college students. Subjects were 684 students who responded to a student engagement survey questionnaire among the students attending the regular curriculum at the K-college located in Geoje-si. For measurement, the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nalysis scale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prior to use. Frequency analysis was adopted to search individual backgrounds of college students.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the years for graduation, college majors, and grades by the level of learning proces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on gender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volvement in and out of instruction, teaching-learning outcomes, and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Second, the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the years for gradua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volvement in and out of instruction, class satisfaction, and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Third, the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major difference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volvement in and out of instruction, study interactions, academic achievement, and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Fourth, the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grade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sub-components (involvement in and out of instruction, class satisfaction, study interactions, academic achievement, and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Lastly, the study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are described.

**Keywords** : College student, Curriculum of College, Learning Processing, Student Engagement

\*Corresponding Author : Kim Soo huyn(koje coelege)

Tel: +82-55-680-1680 email: shkim@koje.ac.kr

Received December 26, 2016

Revised (1st March 29, 2017, 2nd May 10, 2017, 3rd May 15,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 1. 서론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이론 습득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써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밀착형 교육과정 기반의 실습 중심 수업, 2~4년제의 수업 연한, 산업체 경력 중심의 교수 분포, 대학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조교의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자재 및 실습실 비율이 높은 대학시설 등 전문대학은 재학생의 현장실무능력 증진을 위한 실용주의적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1-3].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년 학제별 취업률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67.8%(졸업자 183,338명 대비 약 124,337명)로, 이는 일반대학의 64.5%(졸업자 301,606명 대비 약 194,536명) 취업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의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교육목적과 현장에 기반을 둔 실용 교육과정 운영의 가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교육부(2013)는 높은 취업률을 기준으로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에 관한 양적 성장은 지지하였으나, 교육과정의 질적 영역과 사후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교육과정의 질적 영역의 미흡은 주로 학과·학사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도 상담에 대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4-6]. 일반대학의 4~6년에 비하여 전문대학은 2~4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수업 연한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전문학사학위 수여, 취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7]. 이외에도 전공심화과정 이수 또는 편입학을 통한 학사학위 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사회적 진출에도 기여해야 한다[8]. 그 결과, 재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 선택권이 없게 되고, 학생 지도 상담은 주로 교과목 이수 여부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 여부 등에만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게 된다[7,9-10].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비정규 교육과정 또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도 전공교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직무능력 향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11-12]. 그러므로 전문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짧은 수업 연한 동안 취업 위주의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13]. 이러한 교육과정의 양적 지원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선행학습

수준 및 학습수행능력의 부족, 심리·정서적 문제의 호소, 인성교육의 미비 등의 특징을 보이는 전문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시작부터 산업현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7,14-19].

최근, 양적지원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효과성 연구 방안으로 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평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제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대표적인 개념이 학습과정이다[1,20-21]. 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평가는 연구자 또는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정의와 영역이 다양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22-23]. 그 중에서 대표되는 용어는 학습참여, 학습경험, 학습과정으로 각 개념들은 상호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관점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24]. 학습참여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성공적 학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관점으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 학습에 대한 헌신 또는 투자로 정의된다. 학습경험은 학습자가 학습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겪게 되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흥미와 목적에 따른 학업과 캠퍼스 활동의 몰입, 학습에 관한 개인적 동기로 정의된다. 이에 비하여 학습과정은 어떠한 관점을 강조하기보다 학습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 그리고 대학의 학습지원 활동 요소 전체를 포함하는 중립적 용어로 정의된다. 학습과정이 지닌 개념의 중립성으로 최근에는 학습자의 학습과정 평가라는 용어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참여, 학습경험, 대학의 학습지원 체계 전반에 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20,25].

이처럼 다양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학습자의 학습과정 평가 결과는 대학의 외부적 차원과 내부적 차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의 외부적 차원으로는 교육책무성 및 학습과정에 관한 일반 현황 정보, 경쟁대학 또는 준거대학과의 비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다[20]. 대학의 내부적 차원으로는 학습과정 영역 및 활동별 강·약점 정보, 학습과정 취약집단 정보, 교수-학습지원 전략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 정보, 교수-학습 만족도, 교수-학습 지원체제 개선방안 정보 제공이 있다[11,26]. 이러한 학습과정 평가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활용된다면 전문대학 평가 순위, 취업률, 기초학습능력 수준, 학점 등의 양적 정보를 보완하고 대학의 전략적 성장과 발전을 위

한 질 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7].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효과성은 양적 결과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으며, 전문대학의 학습자가 경험한 학습과정 평가에 의하여 완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 수업만족도, 학습 상호작용, 학습 성과, 대학 만족도를 전문대학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으로 정의하고, 경남 지역 소재의 K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수업연한, 계열, 학점에 따라 학습과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차이를 밝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과정 평가를 통하여 전문대학이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교육 제반에 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K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정규교육과정 1, 2,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설문 조사는 학과별로 800부가 배부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휴학 및 취업 또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을 제외하고 총 684부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356명(52.0%), 여성 328명(48.0%)이며, 평균연령은 22.3세(SD=2.64)이었다. 학제는 2년제 178명(26.0%), 3년제 357명(52.2%), 4년제 149명(21.8%)이었다. 계열은 공학계열 389명(56.9%), 사회계열 146명(21.3%), 자연계열 149명(21.8%)이었다. 직전 학기 평점은 A+ ~ A 123명(19.3%), B+ ~ B 299명(43.7%), C+ ~ C 192명(28.1%), D+ 이하 61명(8.9%)이었다.

### 1.2 측정도구

#### 1.2.1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척도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표, 김수연, 박윤희, 손경옥(2013)[24]의 전문대학생 학습과정 분석 척도를 교육과정 및 교육공학 박사학위소지 전문가에게 해당 문항을 검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정표, 김수연, 박윤희, 손경옥(2013)[24]의 문항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 척도는 총 1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과정 참여 수준이 높고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뜻한다. 하위요인은 수업 외 학습활동(35문항), 수업 중 학습활동(23문항), 수업만족도(13문항), 학습 상호작용(8문항), 학습성과(18문항), 대학 만족도(13문항) 등 총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50이었으며, 수업 외 학습활동 .901, 수업 중 학습활동 .873, 수업만족도 .845, 학습 상호작용 .820, 학습성과 .939, 대학 만족도 .885이었다.

**Table 1.** Composition of Scale Question and Reliability Coefficient of Anysis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Sepc.	no.	Cronbach's $\alpha$
Involvement out of Instruction	35	.901
Involvement in Instruction	23	.873
Class Satisfaction	13	.845
Study Interactions	8	.820
Academic Achievement	18	.939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13	.885
All	110	.950

### 1.3 자료 분석

성별, 학제별, 계열별, 학점별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에서는 두 집단 이하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세 집단 이상인 학제, 계열, 학점의 경우 사후검증으로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사후검증은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에 의하여 유의확률  $p > 0.5$ 일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는 Scheffe 사후검증을, 유의확률  $p < 0.5$ 일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Games-Howell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2. 연구결과

### 2.1 전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습과정 차이

전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습과정 차이 결과 남학생(M=249.78, SD=37.91)과 여학생(M=244.71, SD=29.93)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73$ , n.s.).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습과정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하위요인의 경우 수업 외 학습활동( $F=15.07, p<.001$ ), 수업 중 학습활동( $F=11.02, p<.01$ ), 학습성과( $F=7.12, p<.01$ ), 대학시설서비스( $F=5.60, p<.05$ )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업 외 학습활동은 남학생( $M=66.15, SD=14.70$ )이 여학생( $M=62.23, SD=11.37$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수업 중 학습활동은 여학생( $M=51.12, SD=8.97$ )이 남학생( $M=51.12, SD=8.97$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학습성과는 남학생( $M=48.80, SD=9.18$ )이 여학생( $M=47.06, SD=7.71$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시설서비스는 남학생( $M=32.02, SD=9.30$ )이 여학생( $M=30.43, SD=8.09$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남녀 전문대학생 간 수업 외 학습활동, 학습성과, 대학시설서비스는 남학생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업 중 학습활동은 여학생이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이 높게 인식한다고 나타난 수업 외 학습활동 중에서는 문항 12(만족하기 전까지 내용과 구성에 대해 2번 이상 수정함), 문항 9(수업 준비 목적이 아닌 인터넷 활용), 문항 8(수업 발표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용)이 각각 2.62, 2.51, 2.50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수업 외 학습활동 중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기 활용을 통해서 수업 준비, 예복습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높게 인식한다고 나타난 학습성과 관련 활동 중에서는 문항 93(자신의 능력, 관심, 성격에 대한 이해), 문항 83(컴퓨터 및 기타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문항 86(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이 각각 2.82, 2.79, 2.79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현재까지의 대학생활의 학습성과 중 자기관리, 사고력, 정보기술처리 및 활용 분야에서 향상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높게 인식한다고 나타난 대학시설서비스 만족도 중에서는 문항 102(컴퓨터 및 IT시설 설비), 문항 100(도서관 시설), 문항 99(강의실 설비)이 각각 2.95, 2.93, 2.81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다르게 여학생이 높게 인식한다고 나타난 수업 중 학습활동 중에서는 문항 40(수업시간 중 필기를 함), 문항 54(강의식), 문항 41(수업과제를 위하여 동료 수업 수강생들과 도움을 주고 받음)이 각각 3.40, 3.35, 2.92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노트필기와 동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집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 $F=0.53, n.s.$ ), 학습 상호작용( $F=0.04, n.s.$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 전문대학생 간 수업만족도, 학습상호작용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Table 2.** Difference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on Gender

Sepc.	male (n=356)	Female (n=328)	F
	M (SD)	M (SD)	
Learning Process	249.78 (37.91)	244.71 (29.93)	3.73
Involvement out of Instruction	66.15 (14.70)	62.23 (11.37)	15.07***
Involvement in Instruction	48.75 (9.64)	51.12 (8.97)	11.02**
Class Satisfaction	36.92 (5.19)	36.65 (4.31)	0.53
Study Interactions	17.15 (4.49)	17.22 (3.99)	0.04
Academic Achievement	48.80 (9.18)	47.06 (7.71)	7.12**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32.02 (9.30)	30.43 (8.09)	5.60*

\* $p<.05$ , \*\* $p<.01$ , \*\*\* $p<.001$

## 2.2 전문대학생의 수업연한에 따른 학습과정 차이

전문대학생의 수업연한별 학습과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2년제( $M=243.06, SD=36.00$ ), 3년제( $M=249.62, SD=34.46$ ), 4년제( $M=247.03, SD=31.83$ ) 간 학습과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18, n.s.$ ).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수업연한에 따른 학습과정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하위요인의 경우 수업 외 학습활동( $F=5.54, p<.01$ ), 수업 중 학습활동( $F=7.87, p<.001$ ), 수업만족도( $F=5.94, p<.01$ ), 대학시설서비스( $F=4.13, p<.05$ )는 수업연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수업 외 학습활동은 2년제( $M=61.90, SD=13.33$ ), 3년제( $M=65.80, SD=13.56$ )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4년제( $M=63.42, SD=12.37$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수업 외 학습활동은 3년제가 2년제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학습활동은 2년제

(M=47.73, SD=9.52), 3년제(M=50.19, SD=9.60)와 4년제(M=51.72, SD=8.25)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업 중 학습활동은 4년제와 3년제가 2년제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는 4년제(M=36.23, SD=4.12)와 3년제(M=36.50, SD=5.00), 2년제(M=37.83, SD=4.74)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업만족도는 2년제가 3년제와 4년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대학시설서비스는 4년제(M=32.17, SD=8.24), 2년제(M=29.67, SD=8.93)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년제(M=31.66, SD=8.83)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시설서비스는 4년제가 2년제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3년제가 2년제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수업 외 학습활동에서 문항 8(수업 발표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용), 문항 12(만족하기 전까지 내용과 구성에 대해 2번 이상 수정함), 문항 10(수업시간 외 스마트폰 학습 어플리케이션 / SNS 활용)이 각각 2.66, 2.66, 2.50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3년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업 외 학습활동 중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글 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와 3년제가 2년제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4년제 는 문항 54(강의식), 문항 40(수업시간 중 필기를 함), 문항 41(수업 과제를 위하여 동일 수업 수강생들과 도움을 주고 받음)이 각각 3.46, 3.32, 2.92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3년제는 문항 40(수업시간 중 필기를 함), 문항 54(강의식), 문항 58(실습)이 각각 3.29, 3.13, 2.50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수업만족도는 2년제가 3년제, 4년제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 65(시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맞게 출제되었음), 문항 66(수업자료들이 적절하게 선택되거나 제공됨), 문항 59(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에 대해 만족함)이 각각 3.12, 3.07, 3.03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대학시설서비스는 4년제가 2년제에 비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 101(전공 관련 실험실 시설 및 장비), 문항 104(보건실 : 건강지원 서비스), 문항 102(컴퓨터 및 IT 시설 설비)가 각각 3.15, 2.97, 2.67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학습 상호작용(F=0.67, n.s.), 학습성파(F=2.55, n.s.)

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연한에 따라 학습 상호작용, 학습성파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Table 3.** Difference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the years for graduation

Sepc.	two years' course (n=178)	three years' course (n=357)	four years' course (n=149)	F
	M (SD)	M (SD)	M (SD)	
Learning Process	243.06 (36.00)	249.62 (34.46)	247.03 (31.83)	2.18
Involvement out of Instruction	61.90 <sup>a</sup> (13.33)	65.80 <sup>b</sup> (13.56)	63.42 <sup>ab</sup> (12.37)	5.54**
Involvement in Instruction	47.73 <sup>a</sup> (9.52)	50.19 <sup>b</sup> (9.60)	51.72 <sup>b</sup> (8.25)	7.87***
Class Satisfaction	37.83 <sup>b</sup> (4.74)	36.50 <sup>a</sup> (5.00)	36.23 <sup>a</sup> (4.12)	5.94**
Study Interactions	17.45 (4.45)	17.17 (4.22)	16.91 (4.11)	0.67
Academic Achievement	48.47 (8.88)	48.29 (8.60)	46.58 (7.89)	2.55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29.67 <sup>a</sup> (8.93)	31.66 <sup>ab</sup> (8.83)	32.17 <sup>b</sup> (8.24)	4.13*

\*p<.05, \*\*p<.01, \*\*\*p<.001

note 1. scheffe posteriori tests : a<b

### 2.3 전문대학생의 계열에 따른 학습과정 차이

계열별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M=246.35, SD=36.43), 사회계열(M=250.35, SD=31.17), 자연계열(M=247.03, SD=31.83) 간 학습과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73, n.s.).

하위요인의 경우 수업 외 학습활동(F=4.57, p<.001), 수업 중 학습활동(F=16.88, p<.001), 학습 상호작용(F=10.42, p<.001), 학습성파(F=3.75, p<.05)는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수업 외 학습활동은 사회계열(M=61.79, SD=11.86), 공학계열(M=65.52, SD=14.08)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자연계열(M=63.42, SD=12.37)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업 중 학습활동은 공학계열(M=48.13, SD=9.22), 자연계열(M=51.72, SD=8.25)과 사회계열(M=52.68, SD=9.94)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학습 상호작용은 공학계열(M=16.77, SD=4.22)과 자연계열(M=16.91, SD=4.11), 사회계열(M=18.59, SD=4.2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학

습성과는 자연계열(M=46.58, SD=7.89), 사회계열(M=49.29, SD=8.48)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공학계열(M=48.00, SD=8.74)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사회계열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수업 외 학습활동에서 문항 12(만족하기 전까지 내용과 구성에 대해 2번 이상 수정함), 문항 8(수업 발표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용), 문항 9(수업 준비 목적이 아닌 인터넷 활용)이 각각 2.61, 2.51, 2.42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학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업 외 학습활동 중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기 활용을 통해 수업준비뿐만 아니라 수업준비 목적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열, 자연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수업 중 학습활동에서 사회계열은 문항40(수업시간 중 필기를 함), 문항 54(강의식), 문항 41(수업과제를 위하여 동일 수업 수강생들과 도움을 주고 받음)이 각각 3.34, 3.27, 3.01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은 문항 54(강의식), 문항 40(수업시간 중 필기를 함), 문항 41(수업과제를 위하여 동일 수업 수강생들과 도움을 주고 받음)이 각각 3.46, 3.32, 2.93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사회계열이 공학계열, 자연계열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학습상호작용 중에서 문항77(선배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 문항 79(교수진과의 관계), 문항78(학과 조교 및 각종 지원센터의 직원과의 관계)에서 각각 3.17, 2.97, 2.86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계열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학습성과 중에서 문항93(자신의 능력, 관심, 성격에 대한 이해), 문항 80(대인관계 능력), 문항 81(의사소통 능력)이 각각 2.92, 2.92, 2.90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계열 학생들은 현재까지의 대학생활의 학습성과 중 자기관리, 대인관계 및 협력, 의사소통 분야에서 향상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업만족도(F=2.51, n.s.), 대학시설서비스(F=1.34, n.s.)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계열에 따라 수업만족도와 대학시설서비스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Table 4. Difference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Major differences

	Engineering (n=389)	Social Science (n=146)	Natural Science (n=149)	F
	M (SD)	M (SD)	M (SD)	
Learning Process	246.35 (36.43)	250.35 (31.17)	247.03 (31.83)	0.73
Involvement out of Instruction	65.52 <sup>b</sup> (14.08)	61.79 <sup>a</sup> (11.86)	63.42 <sup>ab</sup> (12.37)	4.57***
Involvement in Instruction	48.13 <sup>a</sup> (9.22)	52.68 <sup>b</sup> (9.94)	51.72 <sup>b</sup> (8.25)	16.88***
Class Satisfaction	36.75 (5.05)	37.47 (4.63)	36.23 (4.12)	2.51
Study Interactions	16.77 <sup>a</sup> (4.22)	18.59 <sup>b</sup> (4.20)	16.91 <sup>a</sup> (4.11)	10.42***
Academic Achievement	48.00 <sup>ab</sup> (8.74)	49.29 <sup>b</sup> (8.48)	46.58 <sup>a</sup> (7.89)	3.75*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31.18 (9.06)	30.52 (8.50)	32.17 (8.24)	1.34

\*p<.05, \*\*p<.01, \*\*\*p<.001

note 1. Scheffe posteriori tests : a<b

note 2. Games-Howeell posteriori tests : a' <b'

## 2.4 전문대학생의 학점에 따른 학습과정 차이

학점별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과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5.52, p<.001). 사후 검증 결과 C학점(M=238.23, SD=33.47)과 D학점 이하(M=231.33, SD=29.58), B학점(M=251.97, SD=33.46)과 A학점(M=257.55, SD=34.46)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습과정은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위요인의 경우 수업 외 학습활동(F=8.07, p<.001), 수업 중 학습활동(F=14.49, p<.001), 수업만족도(F=4.50, p<.01), 학습 상호작용(F=9.99, p<.001), 학습성과(F=8.93, p<.001), 대학시설서비스(F=4.23, p<.01) 모두에서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수업 외 학습활동은 D학점 이하(M=58.90, SD=10.55), B학점(M=65.89, SD=13.36)과 A학점(M=66.43, SD=14.47)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C학점(M=61.96, SD=12.55)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수업 외 학습활동은 A학점과 B학점이 D이하 학점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수업 중 학습활동은 D학점 이하(M=46.92, SD=8.35)와 C학점(M=46.98, SD=8.54), B학점(M=51.14, SD=9.54)과 A학점(M=52.62, SD=9.33)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업 중 학습활동은 A학점과 B학점이 C

학점과 D학점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는 C학점(M=35.99, SD=5.26), A학점(M=37.96, SD=4.77)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B학점(M=36.76, SD=4.48)과 D학점 이하(M=36.93, SD=4.27)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수업만족도는 A학점이 C학점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상호작용은 D학점 이하(M=15.95, SD=3.76) C학점(M=16.09, SD=3.91), B학점(M=17.77, SD=4.33)과 A학점(M=18.03, SD=4.33)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습상호작용은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학습성과는 D학점 이하(M=44.61, SD=8.65), B학점(M=48.47, SD=8.64), A학점(M=50.37, SD=8.18)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또한 C학점(M=46.59, SD=8.08), A학점(M=50.37, SD=8.18)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습성과는 A학점이 B학점,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A학점은 C학점에 비하여 학습성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학시설서비스는 D학점 이하(M=28.02, SD=8.35), B학점(M=31.94, SD=8.51)과 A학점(M=32.14, SD=9.02) 순으로 차이를 보였고 C학점(M=30.61, SD=8.92)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시설서비스는 A학점과 B학점이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

석된다.

학점에 따른 학습과정 및 학습과정의 6가지 하위요인에서 모두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그 평균값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에 비하여 학습과정에 관련된 인식 및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학습참여에 관한 학습과정 수준이 성별, 수업연한, 계열, 학습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습과정은 수업 외 학습활동, 학습성과, 대학시설서비스에서 남학생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수업 중 학습활동은 여학생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학습과정에서 제공되는 학습지원 물적 제반의 활용과 자기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수업 중 전통적 교수학습 환경의 경험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전문대학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전문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졸업 요건 충족 등 취업지원 위주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전문대학교의 취업지원 위주의 교육과정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학생들은 수업 중 학습과정에 충실함으로써 학점 관리 위주로 취업 관리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남학생들은 학점 관리 이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대학 내 위치하는 많은 시설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수업 외에서 제공하는 학습경험을 통하여 취업 관리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성별에 따라 취업지원 교육과정의 선호 경향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학습과정 경험의 폭을 축소시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간 취업 역량의 차이에 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성별에 관한 취업 진출 분야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는

Table 5. Difference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Grades

	A <sup>+</sup> ~A (n=132)	B <sup>+</sup> ~B (n=299)	C <sup>+</sup> ~C (n=192)	D이하 (n=61)	F
	M (SD)	M (SD)	M (SD)	M (SD)	
Learning Process	257.55 <sup>b</sup> (34.46)	251.97 <sup>b</sup> (33.46)	238.23 <sup>a</sup> (33.47)	231.33 <sup>a</sup> (29.58)	15.52***
Involvement out of Instruction	66.43 <sup>b</sup> (14.47)	65.89 <sup>b</sup> (13.36)	61.96 <sup>ab</sup> (12.55)	58.90 <sup>a</sup> (10.55)	8.07***
Involvement in Instruction	52.62 <sup>b</sup> (9.33)	51.14 <sup>b</sup> (9.54)	46.98 <sup>a</sup> (8.54)	46.92 <sup>a</sup> (8.35)	14.49***
Class Satisfaction	37.96 <sup>b</sup> (4.77)	36.76 <sup>ab</sup> (4.48)	35.99 <sup>a</sup> (5.26)	36.93 <sup>ab</sup> (4.27)	4.50***
Study Interactions	18.03 <sup>b</sup> (4.33)	17.77 <sup>b</sup> (4.33)	16.09 <sup>a</sup> (3.91)	15.95 <sup>a</sup> (3.76)	9.99***
Academic Achievement	50.37 <sup>c</sup> (8.18)	48.47 <sup>bc</sup> (8.64)	46.59 <sup>ab</sup> (8.08)	44.61 <sup>a</sup> (8.65)	8.93***
College Facility system and service	32.14 <sup>b</sup> (9.02)	31.94 <sup>b</sup> (8.51)	30.61 <sup>ab</sup> (8.92)	28.02 <sup>a</sup> (8.35)	4.23***

\* p<.05, \*\* p<.01, \*\*\* p<.001  
note. scheffe posteriori tests : a<b, a<bc≤c, ab<c

데 이는 사회 진출 분야에 관한 양성평등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들에게 남녀 구별 없이 다양한 학습과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취업역량에 불균형이 없도록 학과 또는 대학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수업연한에 따른 학습과정에서 수업 외 학습활동은 3년제가 2년제에 비하여, 수업 중 학습활동은 4년제와 3년제가 2년제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는 2년제가 3년제와 4년제에 비하여, 대학시설서비스는 4년제가 2년제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제에 따라 제공되는 학습과정의 경험에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년제는 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과제 수행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제한 시설의 활용과 기초학습 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 경험, 수업 중 제공되는 전통적 교수학습과 실습이라는 학습경험이 두드러진다. 이론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험이라는 구성주의적 학습개념이 3년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짧은 수업 연한 동안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13].

3, 4년제는 2년제에 비하여 1년 또는 2년의 수업연한이 더 존재하고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숙련에 관한 실험적 기회가 부여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학습 평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2년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교수자가 선별하여 제공함에 따라 학습과정에 참여할 시간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게 되어 학습 평가의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2년제의 수업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4년제는 수업 중 학습활동과 대학시설서비스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중에는 전통적 교수학습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문제기반 또는 사례기반 학습과 같이 학습자 간 협력 학습을 통하여 학습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실습과 실습실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교과외의 내용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2년제는 취업 또는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접근 가능한 응축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3년제와 4년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하여 학습자의 주도에 따른 지식의 재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히 유도해야 하고, 학습자에게 이론과 경험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 차원에서는 수업연한에 따른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성과 관리 체제의 구축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업연한의 차이는 학습목표 즉,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경험의 차이를 부여하므로 학습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모든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경험을 제외하면 학제별로 제공되어야 하는 학습과정에는 수업연한이 지닌 특수성을 반영한 학습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계열에 따른 학습과정에서 수업 외 학습활동은 공학계열이 사회계열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학습활동은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하여, 학습 상호작용은 사회계열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 비하여, 학습성과는 사회계열이 자연계열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열은 수업 중 학습활동과 학습 상호작용, 학습성과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계열 학생들이 지식전달에 기반을 둔 학습 환경과 동시에 학생, 교수자, 조교 및 직원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교과내용의 지식 확장과 이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8],[19]. 따라서 학생들에게 단순 지식의 습득 또는 실용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취업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정체적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생의 학점에 따른 학습과정은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수업 외 학습활동은 A학점과 B학점이 D학점 이하에 비하여, 수업 중 학습활동은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는 A학점이 C학점에 비하여, 학습상호작용은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과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과는 A학점이 B학점,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A학점은 C학점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시설서비스는 A학점과 B학점이 D학점 이하에 비하여 높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A학점은 전체 학습과정과 그 하위요인인 수업 외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 수업만족도, 학습상호작용, 학습성과, 대학시설서비스에서 긍정적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학점 학생들이 전체 학습과정에서 빠짐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좋은 학습 결과물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학내 활동과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학내 구성요소들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B학점이 수업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과 연결될 수 있는데, A학점과 같은 모든 노력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학습자는 수업만족도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므로[16], B학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스스로가 참여한 학습과정에 관하여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점 이외에 보상을 통하여 학습에서의 노력을 지속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학점은 수업 외 학습활동, 대학시설서비스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학습과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학점은 수업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 학습과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 선행학습수준 및 학업수행능력의 부족, 심리·정서적 문제, 인성교육의 미비 등 다양한 개인 내·외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8-19]. 따라서 낮은 수준 학업성취 학습자에게는 학습 이외의 요소인 심리적 지원과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개별 필요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과 학과차원에서 지도교수 및 조교와 행정직원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기초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습자들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여 긍정적 자기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제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이 결과에는 해당 전문대학이 소속된 지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특수성을 지닌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재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과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그 유의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과정은 재학생들이 재학 중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학생·교수자·학습내용 간 일어나는 학습 상호작용에 관한 경험을 알아봄으로써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학습 상호작용은 다른 학습과정 하위 영역에 비하여 모든 집단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는 다른 교육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 또는 전문대학생들의 특성 때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재학생들과의 대면 인터뷰 또는 주관적 서술 등 질적 연구를 통하여 현상학적 관점에서 재학생들의 학습과정 전반에 관한 경험과 학습 상호작용 경험, 학년에 따른 변화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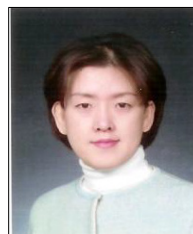
## References

- [1] J. K. Kwan, B. H. Mang, J. S. Lee, H. S. Lee, K. H. Kim, H. J. Bae, M. K. Sin, Y. H. Choi, J. S. Jeong, K. H. Kwan, G. J. Hyun: A Curriculum of Guidelinn based on NCS - Development, management, Evaluation, Quality Managemen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
- [2] M. H. Ko, J. Mi: Effectivenes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or Junior College Students. *Research of Learning Science*, vol. 9, no. 1, pp. 1-20, 2015.
- [3] K. O. Son, J. K. Kwan, J. H. Lee: A Research Study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for College Students.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rean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2013.
- [4] W. H. Jeong: A Study of education of humanism of College's Social Science Subject.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vol. 2013, no. 11, pp. 289-295, 2013.
- [5] W. Y. Yun, W. I. Jung, B. H. Lee: A Case Study on the

- College's Adoption of BSC, *The Journal of Korea Tax Accounting Research*. vol. 37, pp. 83-107, 2013.
- [6] E. M. Im, M. S. Song, M. S. Kim: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Academic Counseling Experiences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3, pp. 1855-1875,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3.201306.1855>
- [7] H. J. Shin: The Life and Knowledge of the College Student, the Experiential Construction: Based on College Lives.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15, no. 1, pp. 187-227, 2012.  
DOI: <https://doi.org/10.17318/jae.2012.15.1.006>
- [8] H. S. You, H. N. Im, Y. I. Seo, J. W. Ko, H. S. Shin, S. H. Park, E. Heo: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in Korean Universities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 [9] S. Y. Kim, H. J. Yu: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ssential Competency Assessment of Vocation for Local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15, no. 4, pp. 71-100, 2013.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3.15.4.004>
- [10] J. E. Jeong, C. Y. Jyu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7, no. 1, pp. 79-96, 2015.
- [11] J. S. Kim: Learning Consultation at a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6, no. 4, pp. 837-851, 2012.
- [12] S. H. Mi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asic Workplace Literacy Development for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Education Research for Tomorrow*, vol. 17, no. 1, pp. 73-91, 2004.
- [13] E. H. Park: A Study on the Educational Participation Factors of the Reverse Transfer Students in Korean Junior Colleg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4, no. 2, pp. 87-115, 2008.
- [14] Y. J. Kwan, Y. S. Park, E. C. Kim: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Happi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25 No.2, pp. 153-172, 2007.
- [15] I. S. Song, J. H. Choi: Exploring the Domain Issue of Academic Emotions: A Comparison of Domain Generality, Domain Specificity and Domain Complex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1, no. 4, pp. 227-243, 2011.
- [16] G. Y. Lee, M. H. Jeong, K. S. Shin: The Application of Basic Learning Ability Diagnostic Tools and Development of Standard Goal for College Student. Seoul: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rean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2008.
- [17] S. I. Han, S. H. Lee: Improvement Strategy of Basic Academic Skills for Junior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of the Each Departm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10. pp. 524-531, 2012.
- [18] J. G. Hwang: The Development of the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KNU. Dept of Education*, 2012.
- [19] Kristin W., Anne A., Andreas L., Siegfried F., Matthias N: Learning and Instruction. Vol29, pp. 103-114, 2012.
- [20] S. H. Bae, H. J. Kim: Valid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NSSE) Model in the Korean Context. *The Journal of Education Administration*, vol. 30, no. 1, pp. 499-523, 2012.
- [21] J. W. You, M. H. Ka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Environment Factors, Individual Factors, and Learning Engag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2, no. 4, pp. 209-337, 2012.
- [22] H. S. You: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in Korean Universities (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 [23] M. J. Chung, S. H. Lee: Effects of Cognitive Learning Program Utilizing Cognitive Learning Program (FIE) for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9, no. 1, pp. 111-128, 2011.
- [24] J. P. Lee, S. J. Kim, D. K. Kim: A study on Connecting Method College Education with Qualification Syste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00.
- [25] J. W. Ko, H. J. Kim, M. S. Kim: The Impact of Students' College Experiences on Students' Cognitive and Non-cognitive Outcomes, and Instruction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Administration*, vol. 29, no. 4, pp. 169-194, 2011.
- [26] Paola, M., Tiziana, R., Silvia, R: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Scholastic Success: Implications for Vocational Guidanc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116, pp. 1232-1236, 2014.
- [27] B. S. Cho, D. U. Lee, K. H. Kim, K. Y. Kim, D. Y. Jeong: Diagnosis and Promotion Plans of Basic Learning Ability for College Student.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rean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2012

김수현(Soo hyu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석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BK Post Doc.
- 2010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관심분야>

교육학, 교수설계, CSCL, HRD.

배 유 나(Yu Na Bae)

[정회원]



- 2016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17년 3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 2015년 9월 ~ 2016년 3월 : 한국기업교육학회 편집간사 및 운영간사
- 2016년 4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교수, 사회계열 초빙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HRD, 경력개발(커리어앵커), 교수설계

이 진 현(Jin-Hyun,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1년 4월 ~ 2014년 2월 :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수련상담원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부산경상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상담연구원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거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원

<관심분야>

역량강화, 심리적응, 외상후성장